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view

domus

新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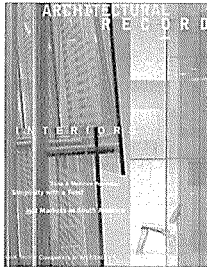
a+u

建築文化

## Architectural Record

98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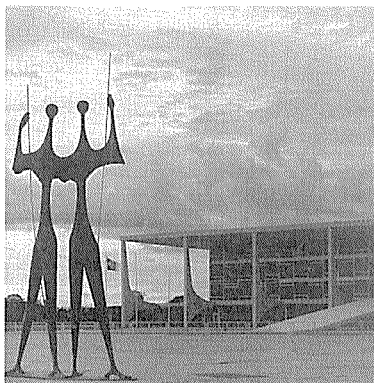
이번호는 경제적으로 회생하고 있는 남아메리카의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건축계에 대해 다루고



다. 각 나라별로 최근작품인 Juan Ignacio Baixas의 산티아고 Prolam 건물, Enrique Browne의 산티아고, 빌라 마리아 학교 교회, Brasil Arquitetura의 Jundiai에 위치한 Polyttheama 극장 리노베이션, Aslan y Ezcurra Arquitectos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Novartis 본사 계획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건물타입에 관한 연구로 인테리어 편을 실었으며, 건축에서의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 ■ 브라질리아의 텃빈 모더니즘



1956년 브라질 정부는 새로운 수도인 브라질리아가 브라질의 분절된 지역들을 통합하고 또한 명확하고 이성적인 평등주의를 실현하며 인구과잉의 해안지방에 대한 새로운 근대적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마스터 플래너였던 Lucio Costa와 오스카 니마이어의 엄격한 꼬르뷔지안

모더니즘은 니마이어의 로맨틱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가끔 공허하며 텃빈 듯이 인식될지 모른다. 99년 3월, 뉴욕 로버트 밀러 화랑에서 전시될 Todd Eberle은 카니발 때의 텃빈 정부청사지역들을 사진에 담았다. 그러나 그것은 황폐해 보이지 않은 않는다. 기괴한 형태의 조각상들과 건물들이 거대한 광장에서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해냈기 때문이다.

### ■ 특집

#### ▶ 남아메리카의 건설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세 나라가 경제적 회복과 더불어 디자인에 적합한 환경을 이끌고 있다.

남미국가들은 80년대의 부채위기를 극복한 후 정치경제적으로 서서히 안정을 되찾으면서 점차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북미의 건축가들은 일감을 제공해주던 아시아가 경제위기에 놓이자 남미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공적인 관계로 만나더라도 사적인 인간관계가 중요시되며, 건축주는 설계회사를 업체로 대하기보다는 인간을 상대하듯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나라의 독특한 생활패턴 등을 이해하고, 경기침체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기피에서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대규모 오피스의 건설에 대한 투자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남미에 진출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 인테리어



Elliot + Associates의 오클라호마 CD Warehouse

인테리어 특집으로 다룬 Tsao & McKown Architects의 최근의 주거 인테리어 작품은 그들만의 독특한 다중시점과 다중양식의 합성을 보여준다. Elliot + Associates의 오클라호마 CD Warehouse는 40개의 프렌차이즈 상점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으며 음악을 시각화하는데 디자인의 초점을 맞췄다. 상점계획을 다른 컨셉으로 접근한 Herbert와 Lewis, Kruse, Blunk Architecture의 아이오와 보석상점은 '호기심'이 전체 디자인의 작용어휘이다. 반투명한 원통형의 벽은 손님이 주의깊게 진열된 상품의 전체 배열을 한번에 보지 못하도록 전체 공간을 분리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Smith Miller + Hawkison의 뉴욕 업스타이트에 위치한 코닝 글래스 센터의 리노베이션, Krueck & Sexton의 Herman Miller 전시장 리노베이션 등을 소개하고 있다.

#### ▶건축에서의 컴퓨터

나날이 증대해가는 건축작업에서의 컴퓨터의 역할에 대해 97년 1월부터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호에서는 CAD와 인터넷의 활용을 다루었으며, www.archrecord.com을 개설하여 지난 5년간의 아티클 목록과 유명 프로젝트의 가상투어 등을 올려놓고 있다. 이번 호에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컴퓨터 활용전략, CAD, Modelling, 프로젝트관리, 시설관리, Drawing Management, Vendor Data에 관한 최신 소프트웨어 정보 등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컴퓨터를 활용한 잊음을 잘 살리고 있는 설계회사 5군데 (HLW, Wiley & Wilson, Collaborative Design Architects, Fentress Bredburn Architects, BSA Design)를 소개하고 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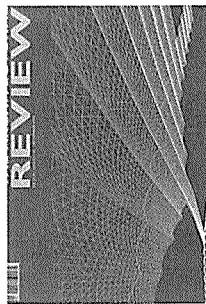
최근 뉴스는 멕시코시티에 세워질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타워에 관한 기사다. Paul Reichmann이 이 지역 일대를 개발하고 Zeidler Roberts가 설계를 맡은 이 타워는 두 개의 수직적 요소, 즉 둥근 유리의 구조물과 연마된 화강암구조물이

병치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밖에 설계사무소에 필요한 컴퓨터와 부속장치들의 구입가이드를 실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미려한 계단의 설계를 위한 기술적 정보를 몇 가지 예들과 함께 다루고 있다.

## Architectural Review

98년 9월호

인간의 운송수단은 극적인 건축물에 의해 찬미되어 왔다. 이번호에는 키쇼 쿠로카와의 쿠알라룸푸르 터미널과 Foster &



Partners의 첵랍콕 공항 그리고 Arne Henriksen이 설계한 두 개의 노르웨이 역사와 Meili Peter Architekten의 취리히 역사 증축이 소개되었다.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는 Volker Giencke의 독일 바스 아파트먼트 호텔과 Future Systems의 런던 플라워 슈 등이 소개되었다.

▶Foster & Partners의 첵랍콕 공항은 사용하기에 쉽고 즐거우며 그것의 환경에 대해 열려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새로운 세대의 공항으로는 가장 최근작품으로, 바닷가에 인접하였으며 고밀도 인구의 산지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공항은 기계와 같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의 메카니즘이 인간을 대륙과 상공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그의 믿음에 근거한다. 기능이 충족되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기본적으로 단순한 평면이 요구되었다. 포스터는 차에서 내리면 탑승객을 기다리는 비행기가 보이고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된 미국의 공항에 대한 유년시절의 기억이 반영되어 Immediacy가 중시되었다. 전체공간은 평행한 볼트구조의 지붕으로 덮여 있으며, 이 공항에서는 항상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벽에서 지붕으로 이어진 곡선의 유리막 아래에서 공항도착자들은 브릿지를 건너 입국심사를 한후 동쪽홀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도착과 출발의 진행은 층을 달리하여 정확하게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Foster & Partners의 첵랍콕 공항

#### ▶Hassel PTY의 시드니 Olymoic Park Railway Station

2000년 올림픽과 매년 열리는 농업박람회 치뤄지는 시드니 서쪽의 작은 마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역사는 운동선수와 동물들의 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어 설계되었다. 외관은 은색의 섬모층과 같이 볼트구조로 명확하게 분절되어 있으며 이러한 표현적 형태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시드니의 표상을 원했기 때문이다. 지하부분에 선형의 홀이 지붕에 향해 열려 있으며 매표소가 있는 콘코스의 유리스크린을 통해 대지면에 있는 플랫폼과 트랙이 보인다. 많은 인원이 쉽게 배분되도록 명확한 수직동선체계가 계획되었다.

#### ▶Kisho Kurokawa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Kurokawa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소멸해가는 유행학에 도입하기 위한 시도로 이 새로운 공항에 토착의 재료, 형태, 그리고 랜스케이핑을 합성하였다. 이 공항은 비교적 메인 터미널의 기본 플랜을 따르고 독립적인 부속의 터미널을 주위에 두었다. 중앙홀은 삼각뿔의 기둥에 의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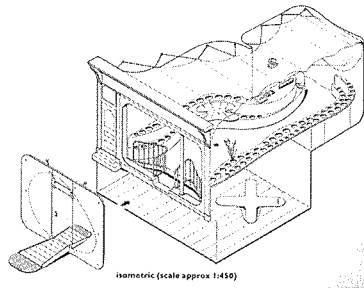
지되는 쌍곡선의 포물선형의 볼트지붕 아래 있으며, 이러한 지붕의 형태는 마치 녹아내리는 돔과 같은 느낌을 주면서 우산 또는 베투인족의 천막의 클러스터와 같은 형태를 띤다. 위 공항의 구성은 단순한 형태의 주요소를 반복함으로써 메인 터미널과 두 대의 위성 터미널의 명쾌한 조합을 이루었다. 이밖에 ▶Aports de Paris의 프랑스 로아시 공항 증축 ▶Arep의 생드니 철도역 ▶Meili Peter Architekten의 취리히 철도역 지붕증축 ▶Arne Henriksen의 노르웨이 릴르스트롬 철도역과 Eidsvoll 철도역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 ■인테리어 디자인

#### ▶Volker Giencke의 독일 바스 아파트먼트 호텔

독일의 통일로 인하여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였던 바스시는 공업적 기능을 잃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곡물창고와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비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것들 중 하나를 아파트먼트 호텔로 개조하는 것이다. 외관과 건물의 아이덴티티는 변형을 하되, 이전 기능에 대한 건물의 기억을 살려두는 방식을 취하였다. 건물은 두 개의 대등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북측 부분은 창고가 있었던 부분으로 캐스트 아이언 기둥과 보로 4×4배이로 이루어져 플랫폼형의 유닛으로 전환하였다. 그 반대쪽 부분은 다소 어려웠는데, 12m높이에 단지 3m너비의 사일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일련의 좁은 아파트먼트 타입의 고안에 이르게 했으며, 그것은 하나의 싱글룸과 사일로의 벽을 뚫고 다음 사일리에 이르는 페어룸의 구성을 갖는다.

▶유동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평면과 단면이 방문객으로 하여금 마치 곡의 깔대기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하며, 곡면의 패브릭 천장은 꽃의 구조 이미지를 X-ray로 투사시키는 것의 스크린이 되고 있는 Future Systems의 런던 플라워 슝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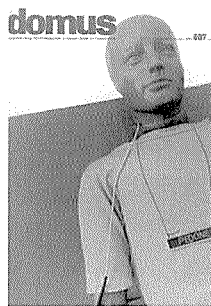


Future Systems의 런던 플라워슝의 인테리어 디자인

### domus

98년 9월호

쿵 힘멜브라우의 드레스덴 멀티플렉스 극장, 마르코 비스콘티의 Melfi 자동차 공장, Ron Keenberg의 퀘벡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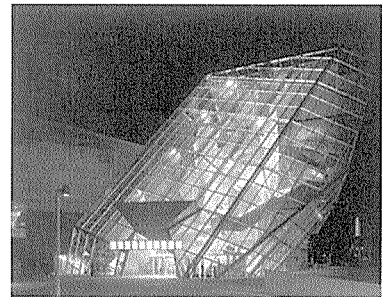


국립 기록 보관소, Pep Zazurca의 스페인 Igualada 주택, Neutelings Riedijk의 네덜란드 Ede의 신문인쇄소 등이 소개되었다. 또 '98 리스본 엑스포의 건축의 공업적 디자인의 양상들에 관한 칼럼과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였던 Jean Prouve의 32가지 발명품 그리고 이태리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Angelo Mangiarotti의 작품 등이 특집으로 실려있다.

### ■근작소개

▶쿵 힘멜브라우의 드레스덴 멀티플렉스 극장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드레스덴에 세워진 강건하고 도발적인 크리스탈 건물로 새로운 퍼블릭공간의 삼차원적 경험은 전체로서의 조각안에서 더욱 자유로워진다. 이 건물은 두 개의 건축적 요소로 이루어

지는데 8개의 오디토리움을 수용하는 콘크리트 벙커와 유리과 금속제의 포이어 스트럭처로 된 모든 방향으로 기울어진 비정형의 거대한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오디토리움은 피난계단을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그것들이 콘크리트 벽에 가려져 있지만 크리스탈안에 노출되어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이면서도 매력적인 오브제로 작용하게 된다. 콘크리트 벙커의 기울어진 면들로 인하여 거대한 물체는 마치 떠 있는 듯한 효과를 발생하며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머리를 부딪치게 될 것 같은 감정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고의적인 조작은 중력의 법칙을 거부하려 하며 대담한 인간의 공간 경험을 유발한다.



쿵 힘멜브라우의 드레스덴 멀티플렉스 극장

- ▶마르코 비스콘티의 Melfi 자동차 공장
- ▶Ron Keenberg의 퀘벡 캐나다 국립 기록 보관소
- ▶Pep Zazurca의 스페인 Igualada 주택
- ▶Neutelings Riedijk의 네덜란드 Ede의 신문인쇄소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테리어의 처리에 있어서 사무부와 생산부인이 동등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것은 제거된 외부를 대신하는 정원에 의해 풍부화되어 있다. 동시에 건물의 파사드는 이 회사의 공업적 행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로버트 벤츄리에 의해 제거되었던 "박스는 Decorated Shed 또는 Duck이면 안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새로운 건축이라는 제3의 선택과 더불어 훌륭한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마르코 비스콘티의 Melfi 자동차 공장 ▶Ron Keenberg의 퀘벡 캐나다 국립 기록 보관소 ▶Pep Zazurca의

스페인 Igualada 주택 ▶Sauerbruch Hutton의 베를린 Photonikzentrum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 Jean Prouve의 32가지 발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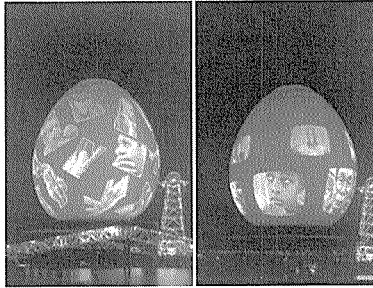
엔지니어이자 건축가, 그리고 빌더였던 Jean Prouve에 대한 특집으로 특히 그가 고안해낸 32가지 발명품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의 실험적인 접근 방식과 초월적 성격, 작업에 대한 윤리적 태도 그리고 그의 디자인과 발명을 그의 제자였던 렌조피아노의 기억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분리될 수 없다는 그의 윤리적 믿음은 과학적 탐구심과 맞물려서 방음 패널, Double Hung Window, 금속제 문과 창문, 파티션 시스템, 패널 조인트 시스템 등을 고안하였다.

■ 칼럼: '98 리스본 엑스포

리스본 엑스포는 현재의 제조업을 설명하는 시험대였다. 컴퓨터의 사용에 의한 대량생산의 전반적 흐름을 잡아내는 것은 어렵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공업적인 창조의 기본 가정들은 알파벳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능성, 주관성, 대칭과 조화 등의 연계가 현장에서 보여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들은 보다 영향력있는 성공을 위해 고투하는 전자매체에 상호작용한다.

리스본 엑스포에서 알파벳의 영향아래 놓여 있는 A - Biases와 이에 구별되는 전자매체의 영향을 반영하는 E - Biases의 두 개의 기본원리에 의해 현재의 디자인 흐름들을 조망해 보았다. 전자는 과정의 분절화되어 있으며, 논리적 법칙에 근거하며, 기계화 어셈블리 라인의 제품의 성격을 보이며 위계적인 유기구성을 지닌다. 이에 반해 후자는 과정이 통합화되어 있으며 지각적인 증거에 기반하며 관계적인 사고의 구분에 의하며, 자동화, 작업분담, 저스트 인 타임 작업의 성격에 맞는 제품의 성격을 갖는다. A - Biases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낡은 텍스트들은 새로운 상황에 두는 것 또는 그 역의 상황도 가능

하며 E - Biases에서는 이미지네이션을 객관적인 물체에 투사시키는 것이다. 그것들은 단단하고 객관화된 물체에 자신의 마음속에 상상이 나타나듯 스크린위에 나타나는 것이다.



Acquamatrix 멀티미디어쇼

■ Angelo Mangiarotti의 조각작품

건축, 아트, 디자인, 공예의 장을 넘나드는 그의 디자인에는 구조적인 이론에 근거하는 공통성을 꿰고 있다. 그것은 구조의 본질을 파악해 내며, 모든 창작의 구성적 부분을 결정하는 주요소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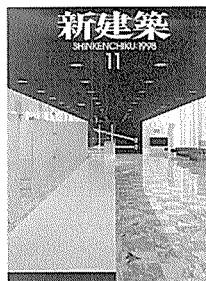
이와 함께 부록으로 밀라노의 Angelo Mangiarotti의 작품 기행 안내가 지도와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新建築

98년 11월

이번 호의 작품소개에서는 YKK 쿠로베에 기숙사(헤르만 헤르츠버거), MA(아리마 히로유키+Urban

Fourth), 히타치 노 리플레(카즈요 시즈마), 시와 메르헨 갤러리(후루야 노부야키+야기 사치코) 등이 소개되



었으며, 연재물인 '전후모더니즘 건축의 궤적'에서는 이소자키 아라타와의 대담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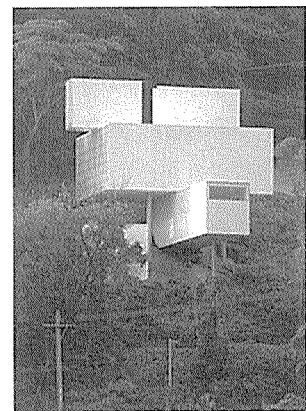
■ 작품분석

▶YKK 쿠로베에 기숙사(설계: 헤르만 헤르츠버거)



이 기숙사는 원룸형 아파트먼트로 약 100호의 주거용 객실과 식당, 도서관을 포함하는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자는 객실로 들어서는 문들이 늘어서고 인공조명에 의해서만 조명되는 일반적인 기숙사의 복도를 탈피하기 위해, 긴 건물을 6등분하여 각 건물의 사이를 띄워 복도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주거용 객실은 메자닌층을 두어 층고를 높임으로써 공간적인 자유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MA(설계: 아리마 히로유키+Urban Fourth)



MA는 조각가를 위한 개인 갤러리와 아틀리에이다. 玄海國定公園의 작은 산의 경사면에 자리잡아 바다와 산이 근접하는 풍부한 자연경관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지녔다. 경사면 흩의 붕괴를 막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경사면에 놓인 바위를 파괴하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건축주가 요구한 것은 방문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자신의 작업장으로 독립하여 전념할 수 있는 아틀리에, 건축가는 이러한 요구를 5개의 직방체를 조합하여 경사면에 떠 있듯이

놓고 각 직방체를 연속된 동선으로 연결하여 건축으로 풀어가고 있다. 실내 갤러리, 옥상 갤러리, 작업장은 각기 독립되면서도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부분적인 간접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와 메르헨 갤러리(설계: 후루야 노부 아끼+아기 사치코/스튜디오 나스카)

이 건물은 작가인 야나세 타카시씨가 편집 발행하는 '시와 메르헨'이라는 잡지의 표지 원화를 주로 전시하는 갤러리이다. 잡지의 원화뿐만 아니라 발행된 잡지도 함께 진열되어 갤러리와 도서관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설계자는 건물의 배경이 되는 작은 수풀이 우거진 구릉이라는 주변 경관을 액자의 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물의 창틀을 통해 보여주는 데 역점을 두었다. 긴 장방형의 매스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수직의 개구부들은 리듬감을 더하고, 'Poem & Märchen Gallery'라고 쓰인 유리를 통해 보이는 갤러리 내부와 문자가 어우러진 모습은 흡사 잡지의 표지디자인을 보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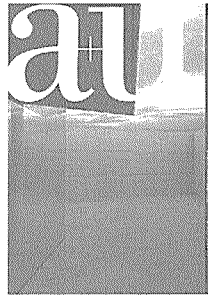
### ■記事 - 미스(Mies) 발굴

1989년에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독일에서 현존하는 미스의 작품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중에는 최근 복원된 미스의 처녀작 릴 저택도 포함되어 있다. 미스의 독일에서의 활동을 미국에서의 전초 활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2000년 MoMA에서 열릴 그의 독일에서의 초기작들의 전람회는 이러한 기준의 생각들과는 그 궤를 달리 한다. 그의 초기작들을 고유의 요건과 문맥들을 가진 것으로 고찰하는 재평가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그의 디자인 언어는 아방가르드와 전통의 계승,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의 긴장감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그의 건축이 지니는 축적된 프로세스와 그가 겪었던 부단한 갈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a+u

98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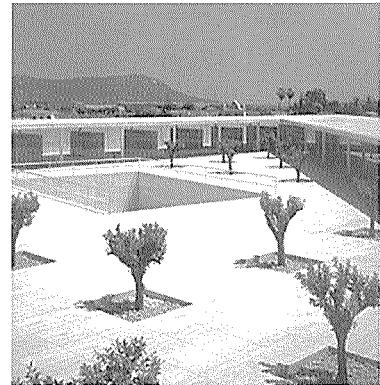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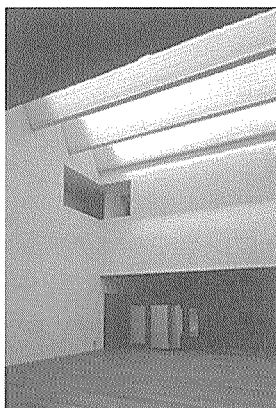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집은 '마드리드 건축가들'이다. 루이스 로호의 에세이 "마드리드에 있어서 근대의 역할 - 오리지널리티



와 이미테이션의 개념"과 함께 라파엘 모네오, 멘실라, 튜논, 빈센스 & 라모스,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 등 마드리드의 대표적 작가들의 작품들과 바에자의 에세이 "More with Less - Idea, Light, and Gravity, Well Tempered"가 소개되었다.

### ■특집 - 마드리드 건축가들

이번 호의 특집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스페인건축, 그 중에서도 마드리드의 건축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은 라파엘 모네오(근대 미술관·건축 박물관/성모 마리아 교회), 멘실라 + 튜논(사모라 고대예술 미술관/실내수영장), 빈센스 & 라모스(노인 Home/ 合同廳舍 'Comsermancha'),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Center for Innovative Technology/그라나다의 은행 본점) 등이다.



마드리드 건축가들의 건축은 신기함이나 혁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역으로 그들의 건축은 여전히 근대건축이며, 경제, 기후, 풍토, 컨텍스트상의 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는가를 어떠한 주저함 없이 표현해 내고 있다. 근대건축에의 사모에 덧붙여, 그들은 억제된 단순함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극치와 소박을 구분짓는 선을 긋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들 모두가 톨라이트나 광정을 이용하여 막대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이렇다할 수단이 없는 곤란한 상황에서 건축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건축이 이러한 특질을 갖게 된 데에는 마드리드의 지리적, 기후적 여건과 그에 따른 건축의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페인의 지리상의 중심, 사막으로 둘러싸이고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며,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풍요로운 도시 마드리드는 수도가 되었다. 이곳의 건축가들은 쏟아져 내리는 빛과 열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은 빛과 그림자와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몰두하였다. 정숙하면서 단순한 건축이라는 오랜 전통이 마드리드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바르셀로나의 번잡한 항구의 소란함으로부터 떨어져, 마드리드의 건축가들은 기후, 풍토, 그리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건축 본래의 영역, 즉 공간, 중력, 빛 속에서 건축을 이어갔다. 이번 호에 소개된 4개의 건축가 그룹의 작품들이 근대건축의 거장들의 계보에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을 통하여

건축이라는 것은 빛 속에서 조합된 매스의 지적이고 장대한 구축이다' 라는 르 꼬르뷔제의 말이 암묵적으로 상기되고 있다. 그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은 태양으로부터, 절대권력으로부터, 그리고 복잡함으로부터의 해방을 희구한다. 오늘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들 마드리드 건축가들은 스페인에서 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에서 그리고 로스엔젤리스에서 그들 각각의 사상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 建築文化

98년 11월호

이번 호에서는 쿠보따 카츠 후미의 Crystal Unit III와 I, II를 포함해 마사 하루 타카시와 헤르만 헤르초버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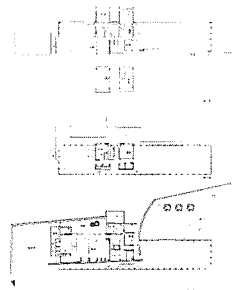


의 작가들이 설계하여 일본에서 최근 완공된 9개의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1990년대의 오스트리아 건축가들' 이 특집으로 꾸며져 ARTEC, Adolf Krischanitz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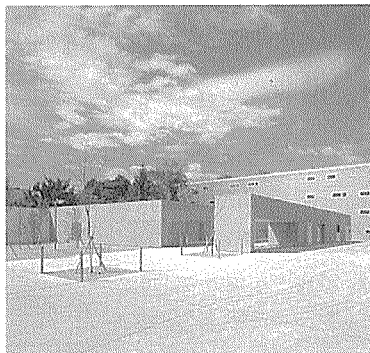
### ■ 작품

▶ 쿠보따 카츠 후미의 Crystal Unit III  
Crystal Unit III는 쿠보따 카츠 후미의 Crystal Unit 연작의 세 번째 작품으로 이들 연작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이들 연작의 공통점은 상자형의 매스와 램프(Ramp)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작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작품이 갖는 격자형의 틀 위에 고정된 유리외벽은 첫 번째 작품의 것이고 카페 업장과 주택

을 한데 묶는 구성은 두 번째 작품에서 아델리에와 주택을 묶는 것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있다.



### ■ 특집 - 1990년대의 오스트리아 건축가들



이번 호의 특집에서는 오스트리아 건축가들 4그룹을 소개한다. 이 4그룹은 '미니멀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피터 애리슨의 큐레이션에 의해 먼저 런던의 AA스쿨에서 전시회가 열렸으며, 이어서 동경에서도 10월에 전시회가 열렸다. 이들 네 그룹은 ARTEC, Adolf Krischanitz, Riegler Riewe, PAUHOF이며, 이들의 건축에 관한 Otto Kapfinger의 에세이 "컨텍스트로서의

공간 텍스트"가 소개되었다.

### ▶ "컨텍스트로서의 공간 텍스트" - Otto Kapfinger

소개된 오스트리아의 4그룹의 건축가들은 1980년대 이래 '新 미니멀리즘' 이라는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미니멀리즘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들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자기이입적인 건축이다, 혹은 이러한 추상적인 건물은 기존의 환경 속에 미소한 방법, 혹은 모뉴멘탈한 형태로 비집고 들어서게 되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 혹은 전원적 컨텍스트에 대한 반발이나 어떠한 주관에 근거한 정념적 이미지의 표출도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건물과 공간에 의한 패턴, 즉 다이내믹한 '공간 텍스트'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공간 텍스트' 라는 것은 건물의 표면에 있어서 웅변하는 듯한 성격을 극도로 억제하여 그 대신 공간적 구조의 복잡함이나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작품이 추상적인 형태를 지니는 것은 의미나 형태에 의거한 건축을 넘어서고자 하는 생각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생겨난 결과이다. 非시각중시적인 성격은 시각적이고 표현적인 건축표현의 걸치레가 득세하였던 지난 수십년간의 풍토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작품은 팜 켈처에 의한 시각과다와 단편화에 대한 해독제로 대두한 1960년대 미국의 미니멀리즘과 아돌프 로스와 비트겐 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자국 건축의 두 가지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소개된 작품들로는 ARTEC - Kern House, Primary School/ Adolf Krischanitz - Atelier and Dwelling, Sperl House/ Riegler Riewe - BSP School, Airport Terminal/ PAUHOF - House P, Kansai-kan Law Library 등이다.